

美 의회 임시 세출 결의 처리 경과 및 향후 섣다운 전망

- ◆ 9.30 임시 세출 결의 통과로 연방정부 섣다운 위기 잠정 모면(11.17까지)
- ◆ 하원의장 경질(10.3)로 인해 연방정부 섣다운 가능성 고조
- ◆ 강경 보수파 의장 선출 시, 美 의회 정치 실종에 따른 경제 악영향 불가피

1. 임시 세출 결의 통과 개요

- (경과) 임시 세출 결의(일명 '스탑갭') 통과로 연방정부 섣다운 시한부 모면
 - 연방정부 세출 권한 종료 시한(9.30 자정) 직전 의회가 스탑갭 법안*을 가결함으로써, 45일 동안 연방정부의 예산 집행 연장
 - 찬반 표결 하원(335-91), 상원(88-9). 민주당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
 - * '연장 결의'(Continuing Resolution) : 의회가 한시적 잠정 세출안을 결의함으로써 최종 연방 세출법안 통과 이전까지 연방정부의 기능정지를 회피하는 제도
- (내용)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승인을 제외한 민주당 요구안 대부분 수용
 - 11.17까지 '23년도 회계연도 수준의 연방정부 예산 집행 권한 승인
 - 그 외 △재난기금 △연방 침수 보험 △연방항공청 등 프로그램 등 연장
 - 공화당 강경파가 요구했던 예산 30% 삭감, 국경보안 강화 등은 미처리
 - 상원 민주당이 주장했던 60억 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통과에 실패
 - *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위한 별도 입법 추진 예상 (뉴욕타임즈, 10.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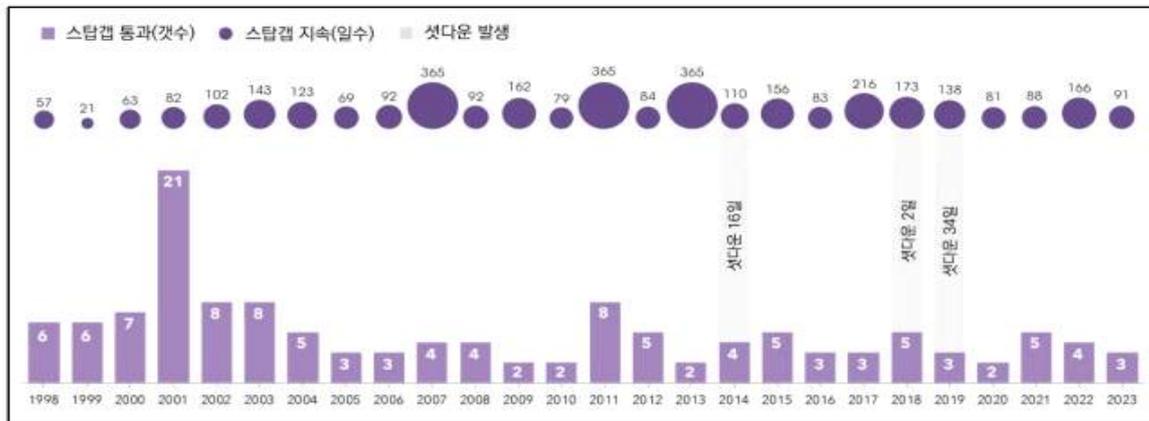
2. 향후 섣다운 전망

- 최종 세출법 통과까지 의회 교착 상태 지속으로 섣다운 위기 상존
 - 10.2 현재 기준 12개 세출법안 중 단 1건도 처리하지 못한 상황, 상·하원의 견해차가 커 양원 법안 중재에도 상당 기간 소요 예상

□ 내년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섰다운 상황은 회피할 것으로 예상

- 정부 섰다운이 내년 선거에서 바이든 정부, 민주당, 공화당 등 어느 쪽에도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분석이 지배적
- 내년 초까지 여러 번 스탑갭 처리를 통해 임시 예산 연장을 반복 후, 결국 여야 상·하원 절충안으로 세출법 통과 가능성 큼.
- * 의회 세출법 통과에서 스탑갭 상시화. '97년 이래 매년 2차례 이상 스탑갭

< 미국 세출법 처리에서 스탑갭의 일상화 >



[자료] Bloomberg Gov

□ 매카시 하원의장 경질로 인해 섰다운 발발 가능성 고조

- 10.3 하원은 표결(찬반 216:210)을 통해 매카시 하원의장 경질 확정
 - 공화당 강경파 8명의 매카시 경질 찬성에 하원 민주당 전원이 당론으로 가담함으로써 사상 최초의 임기 중 하원의장 교체 현실화
- 하원의장 교체 과정에서 여야 간 세출법 협상 지연 불가피
 - 공화당 내 분란이 심화함에 따라, 스탑갭이 종료되는 11월 17일 이후 연방정부 섰다운 위기가 다시 높아졌다고 언론 평가
-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하원의장 경질로 11월 섰다운 확률이 높아졌다고 하며,
 - 차기 하원의장은 스탑갭 통과, 우크라이나 지원 등 사안에서 공화당 강경파로부터 높아진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

- 차기 하원의장의 정치적 성향이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 지대 전망
 - 현재 출마 의사를 밝힌 스티브 스칼리스(Steve Scalise) 의원은 메카시 前 의장과 비교했을 때 보수적 색채가 강한 것으로 평가
 - 짐 조단(Jim Jordan) 의원은 공화당 내 강경 보수 우파를 대표하는 프리덤 코커스(Freedom Caucus)의 前 회장을 역임한 親트럼프 인사
 - 기타 후보인 톰 에머(Tom Emmer), 케빈 호른(Kevin Horn), 칩 로이(Chip Roy) 의원도 보수파, 親트럼프, 프리덤 코커스 소속으로 분류

[참고] 연방정부 섯다운 시 경제 파급효과

- 지난 6월 부채한도 협상 당시에 있었던 금융시장 동요는 없을 전망
 - '95년 이후 모든 섯다운에서 S&P500 지수는 오히려 평균 3.2% 상승. 정부 디폴트 사태를 동반하지 않아 금융시장 영향 미소 분석
 - 일각에서 최근 경제 상황(고유가, 자동차 파업,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)이 섯다운과 맞물려 불확실성 증폭 가능성 제기
- 미국 의회 예산처(CBO, '19.1.28), '18~19년 최장기 35일 동안 섯다운으로 인해 총 18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출 지연 발생 보고
 - '19년 1분기 미국 실질 GDP의 약 2%에 달하는 80억 달러 손실 발생 이 중 30억 달러는 영구 회복 불가 손실로 평가
- 골드만삭스(9.1), 전면 섯다운 시 미국 GDP 성장률 매주 0.2% 감소 예상
 - GDP, 실업률, 물가상승률 등 정부 주요 경제 통계 집계에 차질을 빚어 향후 연준 통화 정책 결정에 어려움 예상 (Pimco, 9.19)
-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(Moody's)는 미국 국가 신용 등급 하락 경고
 - 피치(Fitch)의 미국 신용 등급 AA+로 하향(8.2) 이후, 추가 신용 등급 하락은 미국 국채 발행의 안정성 훼손 우려 심화

[참고자료] 워싱턴포스트, 월스트리트저널, 블룸버그 등 언론 종합